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 **엄 정 화**

"저도 열등감 있어요 꿈 향해 달려갈 뿐"

엄정화를 만나자마자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를 제작한 싸이더스FNH 김미희 대표의 말을 전했다. "내 욕심인데, 정화씨, 시집 가지 말고 연기만 했음 좋겠어. 결혼한다 해도 이미숙 선배처럼 그런 배우로 활동하면 좋겠어."

이 말을 들은 엄정화는 "정말 감동적인 말이에요. 고마워요"라며 언뜻 눈물을 글썽거릴 정도로 좋아했다.

"분에 넘치는 사랑 감사해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로 가수보다는 배우의 길을 선택했고 백상예술대상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연기력을 인정받았지만 영화계에서 그는 이방인이었다. 차기작 '싱글즈'도 2년이 지난 후 출연했을 정도. 그런 그가 이제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

오는 25일 개봉할 '호로비츠를 위하여'는 배우 엄정화의 진폭을 느끼게 한다. 호로비츠 같은 유명 피아니스트를 꿈꿨지만 변두리 피아노 학원에서 "내 아들이 절대 음감을 타고 태어난 것 같다"는 어머니들의 극성에 헛웃음을 짓는 김지수 역을 맡았다.

"이 영화를 보면서 '꿈'과 '열등감'을 생각했어요. 저 역시 많은 사람들이 스타라고 말해주는 데도 열등감이 있어요. 난 천재적이지 못해요. 다만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뿐인데, 천재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느끼는 열등감도 분명히 있죠."

영화를 찍으면서 그는 내내 "과연 최고란 뭘까?"를 생각했다고 한다. 부와 명예?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

"저를 되돌아봤어요. 많은 사랑을 받았죠. 앞으로 할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더군요. 그리고 저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누군가는 있겠구요.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꾸 조바심 내면 자신만 괴롭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이거 밖에 안돼'보다 '이만큼이나 됐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도 알았다고 했다.

엄정화는 연기를 처음 하는 신의재 군을 지도하는 연기 선생님이자 촬영장에서 진짜 엄마 같은 존재로 다가갔다.

"지수와 경민이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 촬영장에서 저와 의재가 그랬던 거랑 많이 비슷해요."

피아니스트로서 천부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의재 역시 뛰어난 아이들이 자주 내비치는 낯선 환경에 대한 어색함을 감추지 않았다.

동생 엄태웅 영화와 기분좋은 경쟁

엄정화는 늘 현장에서 모니터를 볼 때 의재를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시간이 지나자 의재는 당연한 듯 엄정화의 무릎에 앉았다. '너무 이뻐, 사랑해'라는 말을 수없이 해준 어느 날 '저두요, 사랑해요'라는 뜻밖의 대답이 의재 입에서 나왔을 때 "정말 뭉클했다"고 했다.

헤어지는 장면을 찍은 마지막 촬영일. 의재 먼저 찍고 엄정화가 나중에 찍었다. 혼자 연기하고 있는데 어느덧 의재가 엄정화를 꼭 껴안으며 "누나, 사랑해"라고 말한 순간 두 사람은 눈물을 펑펑 쏟았다.

엄정화는 동생 엄태웅과 기분 좋은 경쟁을 하게 됐다. 25일 '호로비츠를 위하여'가 개봉하기 전 18일 엄태웅이 출연한 '가족의 탄생'이 개봉한다.

'월드컵 아리랑' 힘받아 '16강 고개' 넘어간다~

중견가수 서희 응원가 발표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 응원가가 경쟁하듯 앞다투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견가수 서희(49)가 6집 앨범 '꿈은 이루어진다'를 발표했다. 타이틀 곡은 월드컵 응원곡 '월드컵 아리랑'으로 이 곡은 신화, 비,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등 신세대 인기 가수들의 노래와 함께 SBS 월드컵 응원곡으로 선정됐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FC 공식 가수, 아리랑 응원단 응원 위원장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월드컵이 가까워진 요즘 몸이 열개라도 부족할 정도다.

"너는 할 수 있어 정말 해낼 거야/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자격있어…(중략)…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월드컵 아리랑'은 힘차고 경쾌한 리듬과 축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가사,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아리랑'이 후렴구라는 점이 특징이다. 또 어린이들과 일반인도 함께 참여해 응원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살렸다.

"월드컵 응원가는 주로 승리하자는 내용의 구호송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어느 선수가 못하고 싶겠어요.(웃음) 계속 이기라고만 하면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노래는 주로 선수들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서씨는 "'월드컵 아리랑'이 한국적인 색채가 담긴 곡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곡,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곡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앨범에는 '북관대첩비' '간도 of KOREA' 등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내용을 다룬 노래가 수록됐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비· SS501· SG워너비 등

스타군단 잠실벌 달군다

27일 '아이콘서트' 비, 슈퍼주니어, SS501, SG워너비, 코요태 등의 스타 군단이 잠실벌을 뜨겁게 달군다.

이들은 27일 오후 7시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아이콘서트(i-concert)' 무대에 함께 오른다. 이밖에도 아이비, 바다, 파란, 에픽하이, 쥬얼리, 임정희, 리플레이, KCM, 투샤이, 씨야 등 총 17팀의 가수들이 참여한다. '아이콘서트'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주최하고 학생복 아이비클럽이 후원하는 행사. '사랑한다 대한민국'이란 콘셉트로 꾸며져 월드컵 열기도 함께 느낄 수 있다.

god 데니안이 사회를 맡고 전 출연진이 그린 카펫을 밟고 입장하는 퍼레이드도 펼친다. 또 모든 출연 가수들이 교복 차림으로 '불법음반 퇴치' 공연도 펼친다.

아이비클럽은 아이콘서트 홈페이지(icon.ivyclub.com)와 싸이타운 홈피를 통해 콘서트 티켓을 배포하고 있다.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다빈치 코드 -댄브라운의 소설을 영화화했다. 살인 누명을 쓴 랭던(톰 행크스)과 소피(오드리 도투)는 시시각각 좁혀오는 경찰 조직과 파슈 국장(장 르노)의 숨가쁜 포위망을 피하면서,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작품들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을 추적한다.	롯데, 메가박스, 밀리오레, 무등, 엔터, 제일,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하미,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가족의 탄생 -누가 보면 연인 사이라 오해할 만큼 다정한, 친구 같고 애인 같은 남매 미라(문소리)와 형철(엄태웅). 인생이 자유로운 형철은 연상녀(고두심)과 함께 5년만에 누나 미라를 찾아온다.	롯데, 메가박스, 제일, 콜롬버스(상무), CGV(상무·첨단), 하미,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미션 임파서블3 -톰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임무를 수행하던 이단 헌트(톰 크루즈)는 작전 수행중 자신의 아내가 납치당하는 위기에 처한다.	롯데, 메가박스,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졸업을 기념해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놀러간 웬디(메리엘리자베스 윈스테드)는 롤러코스터를 타기 바로 직전에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다. 웬디의 예상대로 롤러코스터는 사고로 전복되고 사고를 피한 웬디 일행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기 시작한다.	메가박스, 엔터, 제일,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메가라인,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공필두 -유니버시아드 레슬링 동메달 리스트로 강력반 형사에 특채된 공필두(이문식). 아버지의 병원비를 구하려다 졸지에 마약사범으로 몰리게 된다.	밀리오레, 엔터, 제일,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담), 하미,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맨발의 기봉이 -어릴때 병을 앓아 지능이 8세에서 멈춘 40세의 기봉이. 효심이 지극한 그는 어머니에게 틀니를 해주기 위해 마라톤에 도전하지만 곧 그의 심장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롯데, 메가박스,밀리오레, 엔터, 제일,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사생결단 -황정민이 마약계 거물을 사로잡겠다는 집념을 가진 지독한 형사로, 류승범이 마약 중간 판매상으로 등장해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을 펼친다.	메가박스, 밀리오레, 엔터, 제일, 콜롬버스(상무),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메가라인,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오늘의 사건사고 -여성 작가 시바사키 토모카(柴崎友香)의 원작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친구의 이사축하를 위해 모인 8명 청춘들의 하루를 그렸다.	광주극장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晧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鎬
편집국장 池炯源
대표전화 2200-500·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팩스 222-4918 총무부 2200-511
편집부 2200-629 〈팩스 222-8005〉
정치부 2200-616 광고국 2200-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1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사업2부 2200-552
사회2부 2200-619 문화사업국 2200-541
〈팩스 227-0118〉 〈팩스 222-0195〉
문화생활부 2200-626 판매부 2200-551
여론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02-773-9331
사진부 2200-690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8.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